제2 방정환교육지원센터 22일 개관

중랑구, 면목7동 일원에 지하 1층~지상 7층 건립

기초과학 실험실·AI 수업공간·스마트북카페 갖춰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미래 교육환경을 선도할 '제2 방정환교육지원센터' 건립을 완료하고 교육도시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알린다.

구에 따르면 오는 22일 열리는 개관식에는 류경기 구청장과 학부모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해 제2센터의 출발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이번에 문을 여는 제2센터는 2021년 개관한 제1센터에 이은 구의 두 번째 교육지원센터다. 이로써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두 곳의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자치구로 지역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게 됐다.

면목로 298(구 면목7동 주민센터)에 들어선 제2센터는 연면적 1462㎡,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로 조성됐다. 내부에는 ▲물리·화학·생명과학 등 기초과학 실험실 ▲로봇과 코딩 등 인공지능(AI) 수업이 가능한 전용 공간 ▲드론 수업 등 활동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될 다목적 강당 등을 갖췄다.

또한 로봇 바리스타가 음료를 제조하는 '스마트 북카페'를 조성해 학생들이 학습과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센터는 오는 29일부터 '겨울방학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을 시작해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입한다. 앞으로 중·고등학생 대상 과학 심화 특강, 인공지능(AI) 로봇 탑험 교실 등 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과학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기반 산업인 섬유·봉제를 활용한 '미래섬유과학 프로젝트'와 서울장미축제와 연계한 '중랑 꽃 과학 캠프' 등 중랑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과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광진구, AI·IoT 노인건강관리 값진 결실

서울시 건강사업 성과대회서 3년 연속 '우수기관'

건강군 32.9%로 19.1%p↓… 허약 개선율 86%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서울시 주관 '건강사업 종합성과대회'에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노인 건강관리 분야의 성과를 인정받아 3년 연속 방문건강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구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6만 전체 인구의 약 18%를 차지한다. 구는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지능형 건강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3년째 적극 추진해 왔다.

2025년에는 홀몸노인등 총 1386명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건강군, 전허약군, 허약군으로 분류한 뒤, 손목 활동량계, 혈당계, 혈압계 등 스마트폰과 연동할 수 있는 기기를 배부했다.

특히 인공지능 스피커를 기기 연동이 불가능한 사용자에게 지급해 건강측정 정보와 응급 호출·말벗 기능 등을 제공했다.

노인들은 기기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고 걷기, 물 마시기, 약 복용, 식생활 개선 등의 건강 과제를 수행하며 건강 수치를 긍정적으로 개선했다.

구는 적극적 관리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법 교육과 유튜브 채널 '광진구보건소 오늘건강'을 운영해 신규 참여자의 적응을 도왔다. 또한, 소집단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영양 교육, 심혈관 질환·허약 예방 운동, 구강 관리법 등을 알리며 참여자 역량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은 사업 주요 지표에 반영됐다. 건강군 비율은 32.9%로 19.1%p 증가했으며, 전허약군 비율은 66.3%로 15.4%p 감소했다. 전체 허약 평가 개선율은 86.1%에 달한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획득하고 기념 촬영 중인 이기재 구청장과 아이들의 모습.

양천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획득… 아동시설 확충·환경 개선 호평

32개 사업 실행 로드맵 구체화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최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획득하며, 아동이 살기좋은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됐다.

구는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아동 참여 및 권리교육 ▲행정서비스의 효과적 조정 ▲아동친화적 공간 조성 등 유니세프가 제시하는 5대 목표를 실천해, 2019년 최초 인증을 획득하고 재인증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재인증은 정책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아동친화도 표준조사, 아동과 주민 의견 수렴, 유니세프 권고사항 이행, 중장기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더욱 엄격한 심사가 진행된다.

구는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친화도 표준조사를 기반으로 지역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아동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아동친화예산 확대 ▲생활권 중심의 안전·복지·문화 정책 추진 ▲보육타운, 테마놀이터, 자연친화적 놀이공간, 키즈카페 등 아동시설 확충 ▲Y교육박람회, 미래교육센터 등 교육환경 개선 성과가 주목받았다.

구는 재인증을 계기로 2026~2029년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권리 존중 ▲안전한 인프라 확충 ▲행복한 가정생활 ▲교육환경 조성 등 4대 핵심 과제와 32개 사업의 실행 로드맵을 구체화해 실천 중심의 정책 전환에 나설 계획이다.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수락산 유아숲체험원 전면 리모델링

노원구, 노후시설 개선사업 완료… 22일 재개장

트리하우스 놀이시설 눈길… 밧줄·나무놀이터도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6개월간의 재정비를 마친 수락산 유아숲체험원을 오는 22일 개장한다고 밝혔다.

수락산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이 유아기부터 자연 속에서 치유와 놀이를 경험하며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으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단장됐다.

구는 '모든 것은 숲으로부터 온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기존 숲의 형태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수락산 등막골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공간의 매력을 한층 높였다.

특히 올해 7월 개관한 서울시 최초의 도심형 자연휴양림 '수락휴'와 인접해 있어 휴양림 이용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설을 확충하고, 뛰놀거나 누워서 쉴 수 있는 네트형 휴식공간을 조성해 계곡 물소리를 들으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자연 속 휴식 경험을 제공한다.

눈길을 끄는 시설은 수락 휴의 인기 공간인 트리하우스에서 착안한 3동의 놀이시설이다. 너와지붕과 천창을 도입해 '나무와 하나가 된 집' 형태를 구현했으며, 잣나무와 굴참나무 등이 놀이시설을 관통하도록 설계해 숲과 시설이 경계 없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완성했다.

이와 함께 밧줄놀이터, 고목을 활용한 나무놀이터, 모래놀이터를 마련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계절에 따른 자연 관찰과 체집 활동이 가능하도록 산딸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등을 식재하고 진달래와 히어리 등 산지형 수종을 더했다.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성인 생활문해교육 맞춤 프로 강화

영등포구, 학력인정 교육 확대

기초영어·IT·AI 과정 운영도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을 위해 'YDP성인문해교육센터'에서 생활문해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YDP성인문해교육센터'는 구에 거주하는 중·장년층과 노인,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기초 학습부터 학력 인정 과정까지 단계별 문해교육을 제공하는 평생교육기관이다. 단계별 한글 교실부터 정보 기술(IT), 기초 인문학 등 다양한 과정을 학습 수준에 맞춰 제공해 수강생들의 학습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 과정은 학력인정 문해교육인 ▲늘푸름학교와 ▲생활문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늘푸름학교는 초등 2·3단계와 중학 1~3단계로 운영되며, 전 과정을 이수하면 검정고시 없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2026년에는 수요가 높은 중학 1단계를 오전·오후 2개 반으로 확대 편성해 참여 기회를 넓혔다.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습자를 위한 '고졸 검정고시 과정'도 함께 운영한다.

생활문해 프로그램은 ▲한글 익히기 ▲한국 역사와 궁궐 이해 ▲기초미술과 칼림바 등 체험 ▲알파벳부터 회화까지 단계별 '기초영어'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65세 이상 학습자를 위한 '영어동화읽기' 반을 별도로 운영해 연령대별 맞춤 교육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 정보기술(IT)'과 '기초 인공지능(AI)' 과정도 운영한다.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을 익히는 기초반부터 앱 활용 중심의 심화반, 동영상 제작과 인공지능(AI) 기초 기술을 배우는 응용반까지 단계별로 편성해 디지털 환경 적응을 돕는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토익스피킹등 취업강좌 개설

도봉구, 내일까지 수강생 모집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19일까지 토익스피킹과 오픽 강좌에 참여할 취업준비 청년을 모집한다.

토익스피킹, 오픽은 많은 기업이 채용 서류 전형·면접 등에서 특정 등급을 요구하고 있어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목표 등급 취득의 필요하다. 이에 구는 취업준비 청년을 지원하고자 2026년 1월 한 달간 토익 스피킹과 오픽강좌를 운영한다.

토익스피킹은 총 8회차로 구성되며, 1월6~29일 매주 화·목요일 진행한다. 정원은 10명이며, 비대면 실시간 줌(ZOOM) 강의로 운영된다.

오픽은 총 12회차로 구성되며, 1월5~30일 매주 월·수·금요일 진행한다. 정원은 10명이며, 오픽 역시 비대면 실시간 줌 강의로 운영된다. 신청 대상은 지역내 19~45세 취업준비 청년이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내년 1분기 115개 평생학습 강좌 개설

수원시평생학습관, 수강생 모집

AI등 첨단미래기술 프로 강화

경기 수원시평생학습관이 17일 오전 10시부터 2026년 1분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1월부터 3월까지 운영되는 1분기 강좌는 ▲첨단미래기술 프로그램 ▲디지털 지식정보 프로그램 ▲생활문화 프로그램 ▲교양 프로그램 ▲인문 프로그램 ▲기관 협력 재능기부 프로그램 ▲거북이공방 프로그램 ▲대상별 맞춤프로그램 ▲시민교육 프로그램 ▲언제든 학교 시민기획 프로그램 ▲무지한 스승의만남 시민참여기획 프로그램 등 총 11개 과정, 115개 세부 강좌로 구성됐다.

첨단미래 기술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인공지능(AI) 기술에 초점을 둔 첨단미래기술 프로그램, 성균관대학교 지능로봇리빙랩과의 협업을 통한 자율주행 실습, 가상현실(VR) 드론 시뮬레이션 체험 등이 있다.

수원=임종인 기자 lim@siminilbo.co.kr

학생 도박예방 교육자료 배포

경기도교육청, 현장사례 수록

경기도교육청은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연계 학생 도박 예방 교육 도움 자료'를 제작·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도박예방 선도교사들의 현장 실천 사례를 바탕으로 ▲교과 연계 예방교육 ▲참의적 체험활동 연계 예방교육 ▲도교육청 정책 연구 결과와 현장 대응 체계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일회성·형식적 예방교육의 한계를 넘어, 학생 일상에 스며드는 지속적 생활교육으로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도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도박으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가정·학교·지역이 함께하는 학생 도박 예방문화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2일에는 도박예방 선도교사 감사 양성 사업 성과공유회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함께 개최해 현장의 예방교육 전문성을 높이고 인력풀 기반을 마련했다.

수원=임종인 기자 lim@siminilbo.co.kr

간추린 뉴스

강북구, 대사증후군 관리 스케줄러·달력 배부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보건소는 2026년 신년을 맞아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신규·주기 검진 주민들에게 연간 스케줄러와 탁상달력을 배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새해를 맞아 구민들의 건강관리 실천을 돕기 위해 제작된 스케줄러와 탁상달력은 하루 일정과 건강 목표를 기록하고, 한 해 계획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배부는 2026년 1월까지 제공되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대사증후군 검진은 20세 이상 강북구민 또는 강북구 소재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검진 전 급식과 사전 예약이 필수다.

검진 항목은 공복혈당·중성지방·콜레스테롤 등 혈액검사와 체성분 측정, 맞춤형 건강상담으로 구성돼 있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인천 강화군-나은병원, 보건의료 안전망 맞손

인천 강화군이 지역사회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군은 지난 16일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지원청, 인천 서북권 지역책임의료기관 나은병원과 함께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응급환자 이송·전원 협력, 지역 주민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학교 보건교육 및 응급 대응 역량 강화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군은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과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적·환경적 지원을 담당한다.

강화교육지원청은 지역내 학교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을 추진하고, 학교 현장의 안전 및 응급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나은병원은 응급환자 이송 지원 등 의료 협력을 비롯해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공공보건의료 분야 자문 등 사업의 실질적 수행 역할을 맡는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희망온돌 성금 940만원 기탁

금천구테니스협회는 금천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940만원을 금천구에 전달했다. 사진은 유성훈 구청장(왼쪽 두 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예산군, 20일 '청소년 마음 열림음악회'

충남 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과 가족의 정서적 치유를 돕기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마음 열림 음악회 마음 온(ON) 콘서트'를 오는 20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첼로 연주와 이야기 나눔을 결합한 치유형 공연으로 이혜린 첼리스트의 스토리텔링 연주를 통해 심리적 긴장을 완화하고 연주자와 참여자 간 진솔한 소통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마음 회복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행사에는 청소년 보호와 지원 활동에 함께하고 있는 1388청소년꿈단, 꿈드림 멘토단, 상담활동가 등이 함께 참여해 청소년을 응원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연대와 지지의 의미를 나눌 예정이다.

예산=김의석 기자 kus@siminilbo.co.kr

서초구, 노인대학 제34기 졸업식… 109명 수료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지난 16일 서초문화예술회관 아트홀에서 '서초노인대학 제34기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졸업생 109명을 비롯해 가족과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축사와 답사, 졸업증서 수여, 포참 및 장학금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모범학생 7명에게 표창이 수여됐고, 개근상 189명과 정근상 25명, 장학금 대상자 10명이 수상의 기쁨을 함께 했다.

꾸준한 출석과 성실한 학업 태도로 개근상과 모범학생으로 선정된 졸업생들이 무대에 오르자 행사장에서는 따뜻한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다. 특히 올해 졸업생 109명 중 최고령인 1938년생 노인은 88세의 연세에도 건강을 유지하며 배움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다.

서초노인대학은 1990년 3월 설립 이후 올해까지 34기, 총 2906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서초구 대표 어르신 평생교육 기관이다. 정규 교양·음악 교육 과정은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매주 화요일 운영되고, 하모니카·생활체조·노래교실 등 특별과정은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강당에서 매주 수·목요일 진행된다.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이천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

경기 이천시가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집중발굴·지원 기간'을 이달부터 2026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운영한다.

이에 시는 복지국장을 총괄 단장으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을 분야별 중점 발굴과 지원할 수 있는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 전담(TF)팀'을 구성했으며, 이와 함께 읍·면·동 이·통장, 지역사회복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경기도희망보듬이 등 민관협력을 통해서 복지위기가구를 집중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겨울철 취약계층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대상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며, 복지위기가구의 다양한 위험 요소를 촘촘하게 살펴 위기 상황에 따라 긴급복지와 맞춤형 급여 등의 공적 급여를 제공하고, 공적 급여 제공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등 소득·주거·일자리 등 분야별로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